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전남선수단이 필승 결단식을 갖고 '3년 연속 종합 5위'·'안정적인 한자릿수 수성'을 목표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 넘어선 도전’...장애인 스포츠 대축제 부산서 개막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오는 31일부터 6일간 31개 종목 열전

광주, 양궁 김옥금·보치아강선희 ‘금빛 도전’...사격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金’ 전남, 역도 유병상·육상 이미옥 ‘金예약’·본볼 ‘4연패’ 도전...사격 이윤리 ‘대회 3관왕’

장애 체육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단 9천805명(선수 6천106명, 임원 및 관계자 3천699명)이 참가하며, 총 31개 종목이 부산 전역 3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2년 연속 종합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 선수단은 올해에도 상위권을 목표로 사격, 양궁, 탁구 등 22개 종목에 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양궁 김옥금, 윤태성을 비롯해 골프 황선하, 보치아 강선희, 펜싱 조성환, 역도 박광혁, 양지은의 ‘금빛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광주선수단 최연소 선수인 배드민턴 이승후(만15세)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중이며, 태권도 한다영은 다음달 열리는 2025 도쿄 데플림픽(청각인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로 메달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대회에서 종합 9위를 기록하며 원정 사상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을 올린 전남선수단은 30개 종목 7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안정적인 한자릿수 순위 수성을 목표로 ‘전남 장애인 체육 저

력’을 입증한다는 각오다.

역도 유병상(순천시), 육상 이미옥(한전KPS),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 사이클 박승기(한전KDN), 한전KPS 본볼팀(송명준, 이영숙, 김효배, 황동기, 소완기)은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특히 4연패에 도전하는 본볼은 단식과 복식 등 다관왕을 노린다.

여자 좌식배구팀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다시 한번 정상 탈환에 나선다.

한편 광주·전남선수단은 사전 경기로 열린 사격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광주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 사격 대표팀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SH2)에서 박동안, 임주현, 박승우가 총점 1천897점을 기록,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박승우는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SH2)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 사격은 혼성 공기소총 입사 R5 단체전(SH2) 예선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혼성 공기소총 입사 R5 개인전(SH2)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추가하는 선전을 이어갔다.

전남은 이윤리, 박영준, 전진화, 정진동이 팀을 이뤄 R3 10m 공기소총 혼성복사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R6 50m 소총 혼성복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격 간판 스타 이윤리는 대회 3관왕을 차지

했다.

이윤리는 R3 10m 공기소총 혼성복사 개인·단체전, R8 50m 소총 3자세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R2 10m 공기소총 입사 은메달, R6 50m 소총 혼성복사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전남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탰다.

남자 DB 공기소총 입사 개인전에 출전한 백승학은 6202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윤리는 “지난해 2관왕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전남의 명예를 빛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해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대회 개최식은 오는 31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홍보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을 진행해 보치아, 쇼다운, 시각 축구 등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박희종기자

‘해남 퀸’ 김세영, 이 기세로 2연승 간다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열전을 이어간다.

선수들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아시아 스윙’ 세 번째 대회인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싸운다.

이번 대회엔 78명의 선수가 출전해 첫 탈락 없이 4라운드 경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김세영이다.

LPGA 통산 12승을 거둔 뒤 약 5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김세영은 지난 19일 해남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주 열린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세영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했다.

최근 페이스는 좋다.

그는 6월 이후 출전한 최근 12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5에 이름을 올리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통산 상금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대회에 걸린 우승 상금 45만달러를 받으면 역대 통산 상금 1천563만9천333달러를 기록해 렉시 토포스(1천542만156달러), 넬리 코르다(1천551만6천840달러·이상 미국)를 끌어내리고 통산 상금 순위 10위에서 8위로 뛰어오른다.

이번 대회엔 김세영 외에도 올 시즌 개막전

‘5년 만에 LPGA투어 우승’ 기운 안고 내일 개막 메이뱅크 챔피언십 출격



김세영이 지난 19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에서 우승한 김아림, 다우 챔피언십 우승을 합작한 임진희와 이소미,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든 유해란 등이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유해란은 지난해 이 대회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4라운드에서 인뤼닝(중국)에게 밀려 2타 차로 뒤진 3위에 올랐다.

그는 이 대회를 포함해 작년 3개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1위를 달리다가 4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징크스를 겪었다. 하지만 올해엔

징크스를 깨고 이 대회에서 시즌 2승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세계랭킹 10위 내의 선수 중에선 올 시즌 유일한 다승자인 1위 지노 티피쿰(태국)과 4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6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7위 인뤼닝, 10위 에이절 인(미국)이 출전한다.

올 시즌 LPGA 투어 6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7개 대회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김명완·이민진, 입신 등극...현역 프로기사 9단은 110명

한국 바둑계에 프로기사 9단이 2명 더 탄생했다.

한국기원은 28일 김명완(47) 8단과 이민진(41) 8단이 입신(入神)의 경지인 9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1994년 프로기사로 입단한 김명완은 그동안 미국에서 오랜 기간 보급 활동을 벌인 탓에 승

단이 지연되다 무려 31년 만에 입신에 오르게 됐다. 중견 여자 프로기사인 이민진은 지난 21일 열린 세계기선전 예선에서 누적 점수 240점을 채워 입단 27년 만에 9단이 됐다.

김명완과 이민진의 승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현역 9단은 총 110명이 됐다.

여자 9단은 이민진이 역대 8번째다.

또 이날 송규상 7단은 좌조(坐照·8단의 별칭), 이현호·최광호 6단이 구체(具體·7단의 별칭), 강지훈·김선기·이재성·오정아 5단은 통유(通幽·6단의 별칭), 원제훈·정유진 4단이 용지(用智·5단의 별칭), 박정수 3단은 소교(小巧·4단의 별칭)로 각각 승단했다.

이승민·최서비 초단은 약육(若愚·2단의 별칭)에 올라 입단 후 처음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손흥민 프리킥 데뷔골 ‘MLS 올해의 골’ 선정

아시아 선수 최초

기막힌 프리킥으로 장식했던 손흥민(LAFC)의 미국 메이저리거사커(MLS)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역사책에 영원히 남게 됐다”며 “한국의 슈퍼스타가 8월24일(매치데이 30) FC델러스전에서 터트린 놀라운 프리킥이 ‘2025 AT&T MLS 올해의 골’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MLS 역대 최대 이적료로 LAFC에 합류한 뒤 세 번째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트렸다”면서 “8월초 MLS 데뷔 이후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MLS 사무국 기준)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지난 8월24일 열린 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6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커커로 나서 정확하



데뷔골을 터트린 후 동료들과 득점의 기쁨을 나누는 손흥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MLS 데뷔골을 꽂았다.

MLS 데뷔 3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매치데이 30의 ‘골 오브 더 매치데이’ 주인공으로 뽑혔다.

1996년 도입된 ‘MLS 올해의 골’에서 아시아 선수는 물론 LAFC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볼리비아戰 ‘대전’·가나戰 ‘서울’

홍명보호 11월 A매치 장소 발표

11월 한국 축구대표팀의 볼리비아와 경기는 대전, 가나와 경기는 서울에서 각각 치러진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호가 다음달 A매치 기간 치를 두 경기장소를 28일 공개했다.

먼저 11월14일 볼리비아와 평가전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어 18일 치르는 가나와 평가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다. 두 경기 모두 Kick-off 시간은 오후 8시다.

이번 2연전 티켓은 축구협회 ‘플레이KFA’(www.playkfa.co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볼리비아전은 11월3일 오후 7시 VIP 회원 선예매,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일반예매가 오픈되며, 가나전은 11월6일 오후 7시 선예매, 7일



오후 7시 일반예매가 진행된다.

지난 10월 평가전에 이어 이번 두 경기에서도 ‘카스존’이 운영된다. 카스존에서는 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 맥주 브랜드인 카스의 생맥주와 굿즈를 제공한다.

또 이번 평가전에서는 지난달 브라질전에서 A매치 1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이재성(마인츠)의 센추리클럽 가입을 기념하는 ‘이재성 팬존’이 운영된다. /연합뉴스